

당신의 지역에도 『쌀 프로젝트』를!

농지의 流動化를 향한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제안

「농지개혁 이래 전후 최대의 농지개혁」이라는 「品目橫斷的 經營安定對策」실시로부터 겨우 1개월 후인 5월8일,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安部晋三 수상)의 4인(伊藤隆敏, 丹羽宇一郎, 御手洗富士夫, 八代尚宏氏)의 유식자 의원이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지개혁이다」 「농지개혁 없이는 강한농업 없다」고 하는 제안(「『所有』로부터 『利用』으로의 구체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의 4항목이다.

- ① 5년 정도 후에 경작포기면적 제로(0)를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공정을 명확히 한다.
- ② 농지에 대해서 定期借地權제도를 창설한다.
- ③ 농지이용료는 농지의 需給을 반영한 것으로서 농지를 빌리는 사람이 경영상 불리하지 않도록 궁리한다. 현재의 표준 小作料制는 일정기간 후 폐지한다.
- ④ 고령, 상속 등에 의해 토지를 내 놓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쉽게 하기 위해 농지를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을 창안한다.

이 제안을 6월에 정리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 반영시켜 가을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매스컴은 예를 들면「朝日新聞」이 「농업개혁, 민간의원의 의견을 되살리자」라고 하는 社説(5월10일자)을 게재하고 「특히 쌀 등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세분화된 농지를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에게 집중시키면 생산비용이 내려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높은 관세와 경쟁 제한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소비자의 부담으로 농업을 보호해 왔다. 그것을 포기하고 대신 재정자금으로 농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새로운 농정이다. 가격인하로 소비자가 수혜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면 재정부담에 이해를 얻기 쉽다.」 등과 그 제안이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인 양 부각시키고 있다.

「EPA의 가속, 농업개혁의 강화」

실은 그 제안의 토대가 되었던 보고서도 같은 날 발표되었다. 경제재정자문회의·글로벌화개혁전문조사회 제1차보고「글로벌화의 활력을 성장으로」의 가운데 EPA·농업워킹그룹에 의한 「EPA의 가속, 농업개혁의 강화」이다.

거기에는 「자유화로부터 장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전개하고 있지만, FTA교섭·체결에 뒤쳐진 일본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은 세계각지에서 경쟁상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EPA와 농업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EPA를 지렛대로 상대국의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농산물의 농산물수출확대로 연계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EPA라고 하는 것은 2개국 또는 복수의 나라 간에 루울을 정해 경제교류를 긴밀화하는 경제연계협정, 과세철폐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FTA(자유무역협정)보다 앞선 내용으로 서비스분야, 투자에 있어서 자유화 지적재산보호 등 폭 넓은 분야의 연계강화도 포함된다.

이는 별것도 아니다. 다국간 교섭의 복잡함과 전세계 시민의 광범위한 저항운동으로 위기에 봉착한 WTO교섭 대신에 양국간, 또는 소수의 복수국간의 교섭으로 체결 가능한 FTA, EP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개혁의 강화」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호주나 미국 등의 거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EPA, FTA 체결을 위해서 농산물의 국경조치를 가능한 한 철폐하라」고 하는 것이다.

EPA, FTA 체결 한다면 식량자급률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일본국내 농지는 점점 경작포기기가 진전된다.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의 규모화나 주식회사의 농업참여로 비용 삭감」 「소유와 이용의 분리로 경작포기지 제로를 지향한다.」

대규모 논농가의 위기

EPA·농업워킹그룹의 제3회 회의(1월20일)에 초청연사로써 초대된 「주식회사 佛田 農産」(이시카와현)사장인 佛田利弘씨가 국경조치 철폐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진술했다. 바로 주식회사에서 대규모(24ha)로 稻作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의견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00만엔이나 700만의

(소득을 얻도록 하는) 경우 쌀의 코스트(노임을 포함한 생산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ha이상 에서도 1가마(60kg 현미)당 15,000엔 정도가 된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15,500엔 정도 든다. 그때(생략) 직접 소득보전을 국경조치를 철폐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아마도 6,000엔 정도의 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지만 그 때에 10,000엔 가까이 직접지불이 무한정 가능할지 어떨지」

「논이라는 것은 물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수로나 농지기반을 막대한 자원봉사적인 에너지로 관리하고 있다. 그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터무니 없는 힘으로 농지나 수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 졌을 때 우리 같은 전업경영만으로 그 막대한 면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또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15,000엔의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도 포함해서 직접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것이 쪽 계속 가능하다면, 받으면 괜찮지만 나는 아마도 재정상 매우 무리가 있는 문제로서 어느 일정의 국경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쌀 가격을 내리서 조금씩 「소규모 농가」의 퇴출을 촉진하고 그 농지를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지금 말한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퇴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 일지도 駒谷씨 일지도 모른다. 겸업경영이 일본의 쌀 재배에 대중을 이루고 있다. 혹은 인건비를 무시한 생산을 하고 있다. 혹은 비용을 무시한 생산을 하고 있는 실태가 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들이 먼저 퇴출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질문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 까. 일손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駒谷씨는 똑같이 초청연사로서 초대된 北海道 長沼町에서 100ha의 농장에서 쌀 외에 감자, 호박 등을 재배하는 駒谷農場的 駒谷씨)

지금까지 「세분화된 농지를 모아서」 대규모화 해 온 「의욕과 능력이 있는」 佛田씨가 이 이상 쌀 가격이 내려가고 더욱이 국경조치가 철폐 되어 지면은 겸업농가보다 앞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 「鳴子の 쌀 프로젝트」

국경조치의 철폐 → 쌀가격이 내려가고 농가의 소득이 감소 → 「대규모 농가」에 집중적으로 소득 보전을 함 → 「소규모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벼 농사를 포기함 → 큰 대규모 농가나 기업에 토지가 집중됨, 이 글로벌화의 시나리오 가운데는 佛田씨가 말한 것처럼 소득보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규모 농가의 수도작 경영은 불안정하게 되고 물론 소규모 농가도 어렵게 된다.

현재에 있어서 농림수산성은 「국경조치의 철폐」에는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쌀 정책 대강」(쌀 정책 개혁추진대책)에는 「효율적인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체가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기점으로 한 수요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여러 가지 수요에 즉각 반응하여 생산을 수행하는 消費者重視·市場重視의 자세」를 「쌀 만들기 본래에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서, 「품목횡단적 경영

안정 대책」이라도 특정의 요건을 갖춘 「후계자」만을 시책의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소규모 농가」의 쌀 생산은 장애라고 말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하고 싶다.

작년부터 미야기현, 오오자끼시, 舊 鳴子町에서 시작되었다. 제목은 「鳴子の 쌀 프로젝트」이다.

舊 鳴子町에서는 논 면적 4ha 이상의 「후계농가」는 620가구의 농가 가운데 겨우 5가구.

鳴子は 연간 85만명이 방문하는 온천의 읍내이지만 이런 상태로 경작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면 온천가를 둘러싼 농촌풍경도 황폐화되면 농가, JA, 가공·직매소 그룹뿐만 아니라 관광협회, 여관의 경영자까지 당사자가 되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주장한다.

「鳴子(나루코)의 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鳴子の 산간지에서 재배된 쌀의 총칭이다. 그래서 「東北 181호」(미야기현 장려품종결정조사에 기초한 시험 중의 쌀)을 이 프로젝트의 심볼로 했다. 東北 181호는 산간지의 작부에 적합한 쌀(내병성이 우수하고, 도열병에 강하고, 저 아밀로스로서 식어도 맛이 있는 특성이 있다) 2006년도는 미야기현 장려품종 결정심사의 일환으로 鳴子에서 가장 상류에 위치한 鬼首地區의 中川原, 寒湯, 岩入의 실험포장에서 총 30a를 재배하여 19가마의 맛있는 쌀을 만들었다.

이 쌀을 산간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탱해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鳴子の 쌀」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재배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간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食 과 農 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鳴子の 자원을 함께 연계해 가면서 鳴子の 새로

운 매력을 만든다. 예를 들면 로쿠로나 옷칠이라고 하는 전통의 기술로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鳴子の 食의 융합을 꾀하고 지역에 「작은 일거리」를 많이 만든다. 이들을 통해서 「鳴子の 쌀」의 食文化를 지역에 확산시켜 간다. 또한 온천의 도시 鳴子は 近郷近在의 농가의 湯治로 번영해온 역사가 있다. 다시 한 번 농업, 농촌과의 연계를 되찾아서 食과 農을 기본으로 한 鳴子 온천의 「접대방식」 「湯治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프로젝트는 나라의 교부금(쌀 농업 비전·산지 만들기 교부금)을 활용하고, 농가인 上野健夫씨를 회장으로 結城登美雄씨를 종합 프로듀서로서 행정과 주민의 협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무국은 시청의 농업진흥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잃어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활동은 작년 9월 15일의 제1회 프로젝트회의에서 시작되어 「鳴子の 쌀 통신」의 발행(월1회) 3단계 물을 가감하여 밥 짓기 실험, 食의 연구회 I·주먹밥 시식, 食·자원 청취조사(3지구), 食의 연구회 II·쌀가루 과자 시식을 반복하여 금년 3월 4일에는 그 집대성한 「鳴子の 쌀 발표회·봄의 축제」가 개최 되었다.

鳴子 스포츠 센터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450명이 참가 지역중심이지만 약 100명은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등 현 외로부터 참가하여 멀리 홋카이도나 큐슈, 도쿄로부터 온 사람도 있다. 회장의 테이블에 차려진 100종류 1000食의 주먹밥이 압권이었지만, 「밥 1인분의 가격으로 살 수 있

는 주변의 먹거리」의 전시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1인분의 밥과 함께 사사가마보코 1/2, 딸기 1개, 사과 포키 4개가 차려졌다. 「鳴子の 쌀이 지향하는 한가마 24,000엔(현미)는 밥 1인분(쌀 약 60g)이면 24엔이 되지만 그 24엔으로 살 수 있는 먹거리의 現物展示이다. 일상의 먹거리와 눈앞에서 비교해보면은 쌀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鳴子の 쌀을 24,000엔으로 사는 응원단을 만들어 농가에는 수취가격 18,000엔을 보장한다. 그래서 차액 6,000엔은 모든 경비 외에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鳴子の 그릇」 만들기, 부서진 쌀을 이용한 빵이나 과자의 개발, 술의 試作, 「鳴子の 쌀 통신」의 발행 등 쌀의 관계된 많은 「작은 일거리」의 개발에 충실해 간다. 「東北 181호」는 鳴子の 근처인 미야기현 古川農業試驗場에서 육성된 것이지만 減反정책가운데 장려 품종으로 선발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품종이었다. 「현재의 쌀은 쌀 맛을 중시함으로 추위에 약하고 조건이 좋은 평야지에 알맞은 품종뿐으로 鬼首처럼 중산간지에 적합한 품종이 아니다. 그러나 찾으면 중산간지에서도 재배되고 맛이 좋은 쌀이 꼭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는 그것을 찾아 재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는 結城씨의 제안으로 찾아졌다.

작년의 시험재배에서는 기후불순에도 불구하고 7가마가 수확되었다. 鬼首는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적설량이 많은 지역으로 눈 녹은 물이 직접 흘러들어가는 논은 벼가 익지 않아 고민 되었지만 시험재배 한 3가구의 농가는 「쌀은 차가운 눈녹은 물로도 묘의 자람이 좋고 물 관리에도 그다지 품이 들지 않고 잘 여물었다. 강한 쌀이구나」라고 기

뽕을 얘기하고 육성자인 永野邦明 총괄연구원은 「산간고랭지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이 연계된다면 육성자의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東北 181호」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저 아밀로스로 「주먹밥으로 만들어도, 식어도 맛있다」라는 것. 또한 맛이 스며들기 쉽기 때문에 비빔밥, 다키 고미 밥에도 잘 맞는다. 연간 85만명의 여관숙박객이 아침에 출발할 때 「점심 식사입니다. 가져가세요.」라고 한 사람당 2개의 주먹밥을 전해주는 것으로 140ha의 논 재배 면적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10년간 鳴子の 농가는 100가구 감소하고 경지포기 면적도 70ha에 이르렀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가한 농가로부터는 경작포기면적의 부활은 물론 「이대로 간다면 예전처럼 새로운 논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농담의 이야기도 튀어나오게 되었다. 「국가가 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라고 結城씨가 말했다.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半商品」이 된다.

철학자인 内山節 씨가 10년 정도 전에 東北地方의 농가 연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부터는 농업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분야라도 상품을 반상품으로 변경해가는 관계 만들기를 해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폭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시장경제를 내부로부터 空洞化 시켜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의 지배로부터 대부분 자유롭게 될 것이다.」(人間選書 『農의 경영의로부터』에 「반상품의

사상」으로서 수록) 内山씨는 그 반상품의 개념을 1992년에 92세로 세상을 떠난 明治시대 출생의 경제사회학자 · 渡植彦太郎씨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그는 나와 만나면 곧잘 이렇게 말한다. 『明治의 인간은 읍내에 반상품이 많이 있었던 시대를 알고 있다. 그것이 明治시대의 인간의 강함이다.』라고 「반상품」은 상품으로서 유통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경제합리주의가 필시도 관철되어 있지 않은 상품인 것. 사는 사람이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가의 쌀 이라면, 「이 지역의 쌀 이라면」하고 사는 경우도 「반상품」이다.

쌀은 농가에 있어서 매우 특수한 작물이다. 선조대대로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그 쌀을 가족이 먹고, 읍내에 나가 있는 자식이나 친척에게 보낸다. 논을 황폐화 시키고 싶지 않고, 쌀만큼은 자기 스스로 재배해서 먹고 싶다. 무엇보다도 쌀을 만드는 것은 농가로서 혹은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증거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佛田씨가 말하는 것 같이 「비용을 무시한 생산」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해도 쌀은 상품이기 때문에 적자로는 어렵다. 그래서 「1인분 24엔의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과 공유해가면서 재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역에서 만들어 간다. 농가에 있어서도, 소비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쌀은 강력한 「반상품」이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상품을 반상품으로 변화시켜가는 재미, 시장경제를 내부로부터 공동화 시키는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지역에서도 즐겁고, 힘찬 「쌀 프로젝트」를! ㉞

〈편집자주 : 본 원고는 일본 現代農業 2007년 7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